

# 원료사료 정보 제공 사료비 절감

## 농진청, 원료사료 에너지 가축 예측 시스템 개발

지난해부터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배합사료와 조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생산비가 상승하고 있고 최근 한우 가격의 하락으로 농가 경영은 순수익에서 순수실손에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가축에게 사료를 급여할 때 사료허설과 분뇨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원료사료 에너지 가치 예측 시스템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호)은 국내 한우 주요 원료사료의 에너지 가치를 빠르고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축산 선진국으로서 동물 급여 실험 대신 자국에 맞는 예측 모델을 개발해 원료사료의 에너지 가치를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진은 실험실에서 진행한 소화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원료사료의 에너지 가치(소화율, 가소화에너지, 가소화총 영양소)를 예측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개발했다.

우선 한우의 탄수화물성 원료사료 가운데 귀리(연백), 라이그라스 틀페

스류, 사료용 피, 옥수수 후레이크, 밀가루(맥파) 총 6종에 대해 동물 급여 소화율 평가와 실험실 소화율 평가를 함께 실시했다. 이어서 두 가지 평가로 얻은 영양소 소화율 자료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원료사료의 에너지 가치 평가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예측 모델을 활용하면 동물 급여 실험 없이 실험실에서 분석한 영양소 소화율을 자료만으로 원료사료의 에너지 가치를 알 수 있다.

이 결과 국립축산과학원 박남건 동물영양분석과장은 “개발된 사료원료 에너지 가치 평가 방법을 활용해 더 정밀한 사료 급여 체계 구축할 것”이라며 “곡물가격(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대희 기자

이번에 개발한 예측 모델을 이용해 국내 다양한 원료사료의 에너지 가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우 농가(자기비판), 국내 사료회사(배합사료), 대학(연구용)에서는 ‘한국기축사양표준 사료성분표’를 기반으로 가축에게 먹이는 사료의 양과 원료사료별 배합비율을 정하고 있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남건 동물영양분석과장은 “개발된 사료원료 에너지 가치 평가 방법을 활용해 더 정밀한 사료 급여 체계 구축할 것”이라며 “곡물가격(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대희 기자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경기도 시화지구를 방문해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업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 시화지구 성공 경험, 새만금으로

### 새만금개발공사, 성공 개발 노하우 공유

#### NH농협은행, ESG 공모

#### 연계 ‘올바른지구카드’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정경민)는 농협금융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구를 위한 ‘올바른지구카드’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출시한 카드는 지난해 9월 농협금융지주에서 주관한 ESG 아이디어 공모전’의 1등 수상작으로 단소종립 실천 및 친환경 소비와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대중교통 ▲공유 모빌리티 ▲전기차 충전 시 7%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동통신요금 ▲오픈마켓·배달앱 ▲스포츠·H&B매장 결제 시 5% 청구할인과, 커퍼런스장 2천원 청구할인 및 편의점 1천원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단소종립 실천과 환경보호 경험을 제공하는 친환경 교통 투화 상품 ‘올바른지구카드’를 출시했다”며 “앞으로 올바른 소비문화 확산과 환경 보호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 연회비는 국내전용 1만 3,000원, 국내외결제(Mastercard) 1만 5,000원으로 카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앱·홈페이지 및 전국 NH농협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대희 기자



#### 전은, JB카드 봄맞이

#### 패션 쇼핑몰 사은행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롯데백화점 전주점을 포함한 주요 패션아울렛에서 3월 봄맞이 대고객 사은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25일부터 27일 까지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용 시 최대 7%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롯데아울렛 부여점은 3월 한 달간 매주 금~일요일 20만원 이상 사용 시 최대 2만원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30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울러 모다 아울렛 전주 김제점은 27일까지 15만원 이상 이용 고객 대상으로 현장 사은품을 200명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퍼니 포인트 또한 전 매장에서 100% 사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 반등을 위해 7월 31일까지 전기맹점 대상 2~3개월 전액 무이자 할부 및 아울렛 등 10대 업종에 협약을 맺고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ank.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최대희 기자

명 수용 규모의 관광·레저·주거 기능의 복합도시며, 북쪽의 시화MTV는 첨단산업과 관광·휴양 중심의 첨단 복합산업단지이다.

강병재 사장은 “시화지구를 새만금의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며 “1994년 시화방조제 준공 후 각종 개발 경험을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 개발에 반영해 새만금의 가치를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선 K-water 시화사업본부장은 “시화지구 추진 경험 등 K-water의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고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회답했다.

/유호상기자·최대희 기자

## 원산지관리사 자격대비반 운영

### 도내 수출기업 FTA전문가 수요 급증 예상… 경진원, 30일부터 교육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인 RCEP 체결이후, 도내 수출기업의 FTA전문가(원산지관리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라북도경제진흥원(전라북도 FTA 활용지원센터)과 전라북도는, 도내 원산지관리사 자격 접수 예정자 30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사 자격대비 교육을 이달 30일부터 6일간 운영한다.

지난 2월 발표된 RCEP은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으로서 전 세계의 인구 30%, GDP 29%, 수출입 29%를 차지해 도내 수출 기업의 신규 시장 확대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RCEP에 포함된 ‘통관서류 자율발급 제도’는 기존 기관 발급 증명서 외에 기업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이를 수행하는 FTA 전담직원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한 경진원은 원산지관리사 교육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 1회로 축소 운영됐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이 올해부터 연 2회 정상 시행되며, 그동안 자격시험 응시 및 취득에 부담을 겪었던 도내 원산지관리사 희망자들에

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교육의 목표인 원산지관리사는 FTA 활용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 확인 및 관리,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등을 담당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의 제조·수출 기업에서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FTA 협정 및 법령 수출입통관 실무,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 분류 등의 기본과 핵심에 대한 숙지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와 기출특강을 통해 실전 대비까지 모두 가능한 커리큘럼으로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관리하고 있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의 협업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현웅 원장은 “온라인 교육의 단점이었던 상호작용 및 즉각적인 피드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오프라인 교육 시행으로 집중도 향상 및 학습효과 증대를 기대한다”며 “FTA 무역 환경 하에서 관세 특혜와 이운 국대회를 목표로 도내 기업의 원산지 관리 핵심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 사업 및 교육 참여 문의는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www.export.or.kr)과 경진원 해외시장팀(063-711-2044)으로 문의하면 된다./최대희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 백두대간 사랑운동·산불예방 캠페인



하고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조심한다면 충분히 산불을 예방할 수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사진 오른쪽부터) 기술보증기금 김종호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협력 지원책 마련

### 중기중앙회, 중기 보증지원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코로나19, 산불피해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24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김종호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3개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년 중소기업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반면 최근 금리 인상 기조, 원자재가 급등

또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신불 등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특례보증 지원 ▲비대면 방식 활성화를 통한 보증지원 간소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 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등으로 논의됐다.

김종호 이사장은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더욱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3개 기관이 서로 협력해 원활한 보증공급과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현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 “공공기관 구매 기피 현상 없애고, 우선구매제도 지켜져야”

### 중기청·조달청, 도내 중기 공공시장 확대 위해 현장 방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지방조달청은 24일 도내 기술개발제품 지정 중소기업을 방문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과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4일 도내 기술개발제품 지정 중소기업을 방문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도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확대 및 관리화제를 위해, 공공조달 우수사례를 중소기업에 전파하고 애로

노력을 쏟아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며 “우선구매제도 등을 활용해 기술개발제품 적극 구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1년간 구매하는 물품총액의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해야 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소프트웨어품질인증(CS) ▲신제품(NEP) ▲신기술(NET) ▲우수조달공동상표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제품 ▲산업용합품목 ▲신업종합성인증제품 ▲혁신제품 ▲불사산업 우수기자재 지정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등 13개 제품이다.

신재경 청장은 “도내 중소기업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기관과도 우수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청장은 “도내 연구개발 중소기업들이 중기부와 조달청의 혁신조달제도에 참여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 이를 발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중기청과 다양하고 실현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